

經濟情報

# 85年度先進國主要産業展望

先進國의 主要産業을 展望함으로서 國內産業의 好·不況을 짐칠수 있고 미루어 潤滑油業界와도 無關할 수 만은 없겠기에 産業研究院 發刊 「産業經濟情報」 紙에서 轉載합니다. (편집자)

지난해 世界景氣의 강한 回復勢에 힘입어 好調를 보였던 先進國의 主要産業들은 금년에도 電子와 自動車産業을 중심으로 계속 活氣를 떨 것으로 世界各國의 豫測機關들은 내다보고 있다.

部門別로 보면, 電子産業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尖端技術의 開發競争과 이에 따른 投資急增에 따라 활발한 伸張勢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部品産業에서는 供給過剩 現象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自動車産業은 世界的인 需要增加에 힘입어 85년에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美國과 日本의 販賣競争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84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機械設備産業은 85년에도 景氣回復勢의 지속에 따라 계속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鐵鋼, 化學産業 등 과잉설비의 문제를 안고 있는 先進國의 斜陽産業들은 85년에도 産業調整의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石油化學産業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新規生産設備가 本格的으로 가동되기 시작함에 따라 과잉설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展望된다.

**電子産業, 85년에도 投資急增 예상** 84年中 주로 半導체와 個人用컴퓨터를 중심으로 높은 伸張勢를 보였던 電子産業은 85년에도 新規投資의 急增이 예상되는 가운데 활발한 成長을 지속할 展望이다. 특히 半導체産業의 新規投資額은 84年中 前年比 2 배에 달하는 63억 달러에 이어 85년에는 75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막대한 投資가 集中됨에 따라 주요 電子部品 가운데 일부는 供給過剩現象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世界半導체市場에서의 國家別, 企業別 販賣 및 技術開發競争은 85년에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各國別로 보면, 世界電子産業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美國의 電子産業은 85년에도 활발한 伸張勢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産業에 있어서도 IBM과 Apple社의 치열한 費用節減競争이 예상되며 이 競争의 틈바구니에서 中 小電子業체들의 浮沈이 예상된다. 한편 世界半導체生産量의 56%를 차지하는 美國의 半導체産業은 일부 主要部品の 供給過剩現象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美國의 半導체需要는 市場이 점차 過飽和狀態에 이룸에 따라 지난해 4 / 4 分期부터 정체를 시작하여 컴퓨터기억소자 등을 중심으로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적어도 85年 중반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同部門에서는 新規投資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日本의 電子産業은 84年中 對美輸出의 好調 및 內需增加에 힘입어 生産量이 前年比 30% 증가하는 등 상당한 호황을 누리며 있는데, 85年中에도 컴퓨터, 通信機器와 半導체 등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의 成長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日本半導체産業은 세계적인 半導체 增産趨勢에 따른 부분적인 供給過剩現象에도 불구하고, 政府 및 金融機關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85年中에는 總投資面에서 美國을 앞지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自動車産業, 需要増加로 好況 지속될 展望** 지난 83년부터 回復되기 시작한 自動車産業은 84년에 이어 85년에도 美國, 유럽을 중심으로 需要增加가 예상되어, 지속적인 伸張勢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의 自動車市場인 美國은 自動車需要가 83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 84년에는 14.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85년에도 美國經濟의 成長勢持續 및 新모델開發 등에 의한 需要創出 등에 힘입어 自動車需要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85년중 이러한 수요증가에 힘입어 계속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世界自動車市場의 관도는 美國과 日本의 경쟁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日本勢에 크게 압도되었던 美國自動車産業은 84년부터 內需伸張 및 輸入規制에 힘입어 점차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GM, 포드, 크라이슬러등 주요 업체들은 주력차종을 小型車로 전환하고 비용절감에 주력하여 日本自動車産業에 대한 競爭力을 갖추면서 84년에는 經營實績도 전반적으로 黒字를 기록하였다. 이들 업체들은 이러한 競爭力提高를 바탕으로 85年中 유럽市場 進出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日本의 自動車業界 역시 85년에도 尖端技術의 응용, 모델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車種을 고급화할 것으로 보여 美國과 유럽 市場에서의 美·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럽의 自動車産業은 85년에도 美國과 日本에 대한 열세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雇傭事情의 惡化에 따른 勞組의 반발로 效率的인 構造調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피아트, 다임러벤츠, 폭스바겐 등 일부 주요업체들이 經營상태가 호전되어 黒字經營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機械設備産業도 호조 예상** 80년대 초반까지 世界景氣沈滯로 어려움을 겪었던 機械設備産業은 84년에는 世界經濟의 강한 回復勢에 힘입어 호조를 나타내었으며, 85년에도 先進國經濟의 成長勢持續에 따라 企業設備投資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機械設備産業은 순조로운 회복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美國의 경우, 85年中 企業設備投資가 84년에 비해 다소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반 製造業체들이 新規投資를 擴大시킬 것으로 보여 産業機械에 대한 需要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美國 機械設備産業과 美國市場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외국 機械設備業체들도 금년중 生産活動이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84年中 활발한 伸張勢를 보였던 日本의 機械設備産業은 85년에도 工作機械 등을 중심으로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輸出에 있어서는 플랜트 輸出의 鈍化로 다소 부진한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先進國의 機械設備産業은 주로 企業設備投資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工作機械類와 工場自動化를 위한 컴퓨터제어기기, 産業用로봇 등을 중심으로 하여 호조를 떨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建設機械類의 경우에는, 先進各國의 건축정책에 따른 公共投資의 축소로 84년에 이어 85년에도 부진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化學産業은 設備過剩으로 稼働率 떨어질 展望

電子, 自動車産業등이 활발한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化學, 鐵鋼 등 過剩設備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斜陽産業들은 85년에도 계속하여 産業調整의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化學産業은 84年中 비교적 호조를 보였으나 85년에 들어서는 需要增加勢가 다소 鈍化되는 데다 設備過剩現象이 심화되어 상당한 고전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石油化學産業에서는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中東產油國과 캐나다의 新規生産施設들이 금년중에 모두 가동될 예정으로 있어 先進國들의 既存施設들은 稼働率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先進國에서는 化學産業에 대한 구조조정작업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미 美國, 日本, 유럽등에서는 20% 정도의 시설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日本에서는 84年中 政府의 주도하에 약 230만톤에 이르는 에틸렌生産施設을 대부분 減縮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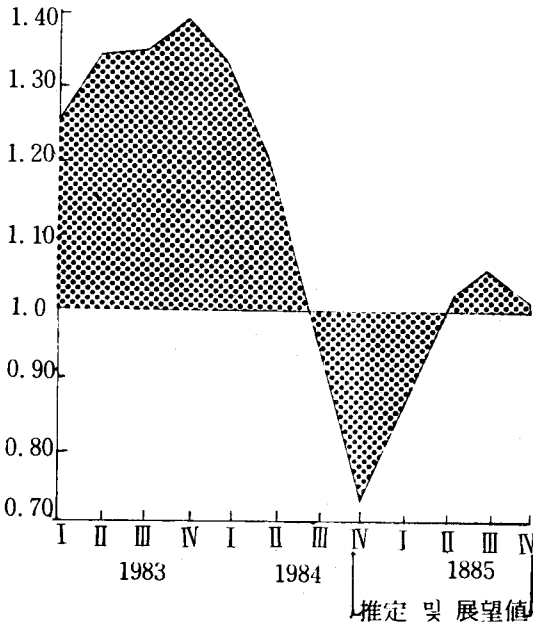
또한 先進國의 化學業체들은 이와 같은 시설

감축노력과 함께 主宗生産品目도 開途國들의 競爭力이 強化되고 있는 基礎化學製品으로 부터 高附加價値品目으로 전환시킬 것으로 展望된다.

**鐵鋼産業, 需要增加勢 鈍化로 고전 예상** 83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先進國들의 鐵鋼需要는 84년에 10.9%의 증가를 보였으나 85年中에는 크게 鈍化되어 3% 정도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鐵鋼産業의 過剩設備 問題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美國鐵鋼産業의 경우 80년에 18% 정도의 높은 증가를 보인 鐵鋼需要는 85년에 들어서는 2% 내외의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84年中에 나타났던 美國鐵鋼産業의 回復勢는 85년에는 다소 주춤할 것으로 展望된다. 더욱이 E.C, 日本 및 開途國들의 수출공세는 美國鐵鋼業界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레이건 政府는 이에 따라 自國鐵鋼産業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84년말부터 주요 對美 鐵鋼輸出國들과 自律規制協定の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 84年中 26%에 달했던 外國産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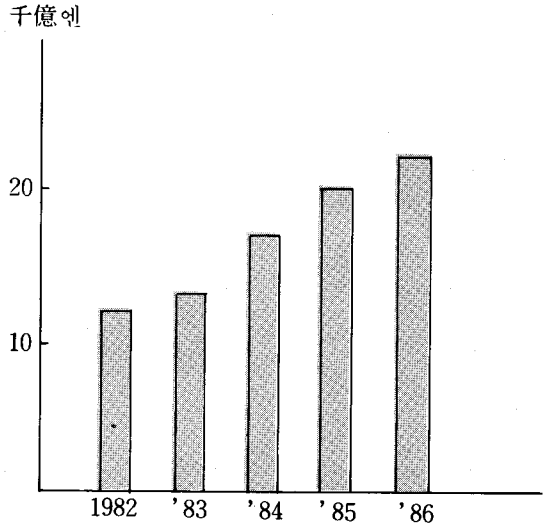
〈圖-1〉 美國 半導體需要의 豫測指標<sup>1)</sup>



資料: Business Week, Jan.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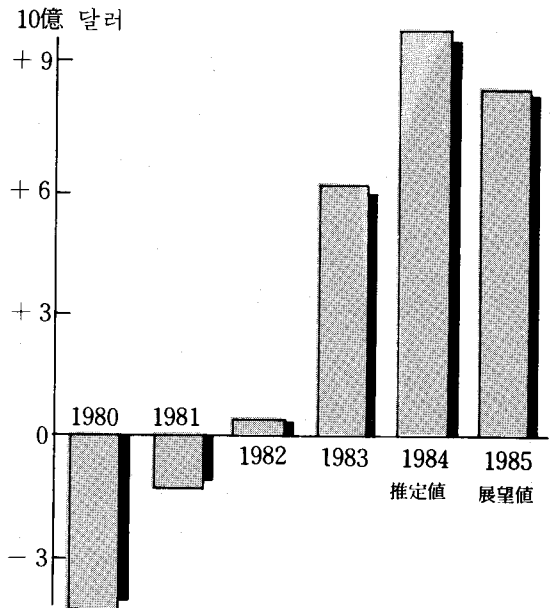
註: 1) 이 指標는 半導體에 대한 新規受注量의 出荷量에 대한 比率임.

〈圖-2〉 日本의 半導體生産 推移 및 展望



資料: 産業研究院, 「半導體市場의 中期豫測」, 1984. 11.

〈圖-3〉 美國自動車産業의 企業收益 推移 및 展望



資料: (圖-1)과 同一

鋼의 美國市場占有率을 85년에는 20% 정도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輸入制限措置는 美國鐵鋼業체들에게는 構造調整의 여유를 다

소간 줄 것이나 世界鐵鋼市場은 더욱 협소해져 鐵鋼輸出國들간의 販賣競爭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日本鐵鋼産業은 84年中 높은 經濟成長勢에 힘입어 粗鋼生産量이 3年만에 1억 톤대를 회복하는 등 호조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85年中에는 美國의 보호주의 강화 및 開途國들의 도전 등에 의해 美國, 中東, 東南아시아로의 輸出이 다소 위축되면서 鐵鋼生産量은 84年과 비

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EC鐵鋼産業의 경우에는, 鐵鋼生産量이 前年比 6% 감소하는 등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84年中 4.4%의 증가를 보였던 유럽鐵鋼需要가 85년에는 거의 정체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유럽鐵鋼의 對美輸出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럽鐵鋼産業의 과잉설비문제는 85年中에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表 - 1〉 先進國의 粗鋼需要 및 生産展望

	粗 鋼 需 要			粗 鋼 生 産		
	1984	1985	1986	1984	1985	1986
美 國	18.8	-1.3	-6.4	9.9	10.8	-0.5
日 本	12.1	3.6	3.6	8.3	4.6	1.7
E C	4.4	1.0	0.8	9.8	-6.4	3.9
自由世界全體	10.9	2.7	0.4	9.5	3.0	1.1

資料：「日本鐵鋼新聞, 1985. 1. 9.

휴게실



**존** F. 케네디는 뉴 프론티어의 기수였을 뿐 아니라 화려한 조크를 종횡무진 구사하는 선천적인 낙천가이기도 했다. 매마침 호루시쵸프가 유엔총회에 와서 구두짝으로 강단을 치는 등 화제를 몰고간 뒤다. 식사에 초대된 칼럼니스트가 웃으며 물었다. 「요즘 호루시쵸프와 연관된 첩보를 들으신 게 있는죠?」 케네디가 대답한다. 「네 있습니다...」 좌중이 귀를 쫑긋 세웠다. 「한 사나이가 크레몰린 궁전 안을 「호루시쵸프는 바보다/호루시쵸프는 바보다!」 소리치면서 달려갔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조지아 주지사가 물었다. 「첩보에 따르면 그 사나이는 곧 붙잡혀서 23년간의 금고형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당 서기장 모욕죄로 3년, 그리고 국가기밀 누설죄로 20년을 먹었다는군요...!」